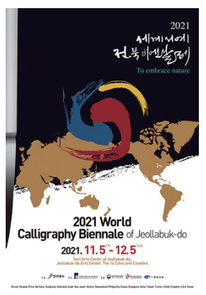
'자연을 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올해 기획된 탐방 프로그램 '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

공현철 기자 hc0029@sjbnews.com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자연을 품다(回歸自然 = 회귀자연)'를 주제로 다음달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간 개최된다.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도내 14개 시·군 31개소에서 ▲ 개막 ▲ 전시 ▲ 학술대회 등 6개 부문 37개(2행사로 서예의 본질을 잃지 않는 가운데 시대성 및 서가의 개성이 배가돼 시공을 넘나드는 공감과 공명이 있는 행사로 추진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는 "서예의 본질과 변화의 길을 추구하며 미디어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전시 공간 확대를 통한 미래 지향적 전시를 선도해 전북서예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개막행사 및 국제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특히 자연을 본받아 탄생한 문자는 인류 문명사의 원류로 그 역사성과 상징성·공통성을 간직하고 있고 문자와 함께 발전한 서예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자연관과 예술관으로 형성된 후 자연의 원리가 더해져 서예의 예술성이 확장돼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주제를 '자연을 품다(回歸自然 = 회귀자연)'로 설정했다.

세계 서예의 큰잔치인 '서예의 역사를 말하다'는 20개국 110명(국내 60명·해외 50명)의 작가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에서 서예의 근본적 정신을 바탕으로 고대·근대·현대의 서체별 변화와 시대성을 작품으로 선보이며 서예의 흐름을 조망한다.

올해 새롭게 기획된 탐방 프로그램인 '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는 해설사와 함께 전북서예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다.

본보 이종근 기자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청전문 가이드로 전주 한옥마을 붓글씨를 안내한다.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전주객사, 27일 오후 2시 전주객사에서 출발, 풍남문, 경기전,

강암서예관, 전주향교, 한벽당에서 답사가 이뤄진다. 무료이며, 답사문의는 세계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또는 이종근에게 연락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 훈민정음 창제이후 한글서예의 역사를 살펴볼수 있는 '나랏말' 전시는 25명의 참여 작가가 궁서체 서예의 시대별 변화를 표현해 올해 행사의 주제를 추구한다.

대중의 삶과 애환이 담긴 노래가 서예작품으로 변신해 음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선율&음률'·문자 디자인의 실용적 가치를 재해석 해보는 '디자인 글꼴'·생활 속으로 한 발 들어가 현대의 주거공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소품화한 '서예의 작은 대작' 전시는 일반 관람객도 무리 없이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서예, 전북의 산하를 말하다'·전북서예의 한마당전 '어디엔들 서예가 없으랴'·미술관, 서예 이야기' 등은 전시 지역 확대 및 전북 서예인만의 참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서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시도된다.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프로그램 구성

구분	행사명	장소
계	37개 행사	31개소
개막 (3)	식전행사	국제회의장
	의식행사(테입컷팅)	전시장
	환영만찬	만찬장
전시 행사 (14)	서예 역사를 말하다	전당 1층(O실)
	나랏말싸미~	전당 2층(R실)
	선율&음률전	전당 2층(R실)
	서중화 · 화중서	전당 3층(I실)
	철필전각전	예술회관 기스락1
	융합서예전	전당 2층(R실)
	시 · 서 · 화전	전당 2층(R실)
	전북서예의 한마당	전당 2층(R실)
	명사서예전	전당 3층(I실)
	해외동포서예전	전당
	디지인글꼴전	1~2층 통로
	천인천각전	예술회관 기스락1
	'작은' 대작전	전당 1층(S실-안쪽)
	서예, 전북을 말하다	14개 시군
학술 행사(2)	국제서예학술대회	국제회의장
	국제학술공모전	〃
특별전 (5)	어디엔들 서예가 없으랴	3개시군
	미술관, 서예 이야기	도내미술관 5개소
	디지털 영상 서예전	전당 중앙(G실)
	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	서예유적지
	비엔날레 서울전	한국미술관(미정)
부대행사 (10)	기념공모전 초대작가전	예술회관 미리내실
	기념공모대상작가전	예술회관 기스락2
	기념공모전	예술회관 치오름실
	대한민국 학생서예전	전당, 2층
	작가와의 만남	소리문화의전당
	서예는 행운을 싣고	〃
	탁본체험	〃
	나도 서예가	〃
	서예, 퍼즐놀이	〃
	서예장터한마당	소리문화의전당 야외
연계행사 (3)	강암 송성용전	강암서예관
	석전 황 욱전	국립전주박물관
	자연에서 배우다	시민갤러리

문경 돌리네습지

습지 감싸고 산을 타고 둥글게 조성된 탐방로 따라 가보니 자그마한 둠벙 옆으로 논이 있다

최선우의 둠벙과 농생태 이야기

29. 문경 돌리네습지를 찾다

진안군과 함께 오미자 생산지로 알려진 문경시를 찾았다. 돌리네습지 방문이다. 습지하면 흔히 물이 흥건한 수풀이 덮인 곳을 떠올린다. 돌리네습지는 수풀 사이로 물웅덩이가 있다고 하여 궁금하던 차이다. 가는 길에 기암괴석 등 수려한 풍경도 보게 된다. 완주군 화산면 가는 길에 있는 강가를 옮겨 놓은 듯하다.

돌리네습지 이정표가 보인다. 마을 입구는 도로 정비공사가 한창이다.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하고 있다. 서낭당에 있을 법한 근사하고 아름드리한 나무 두그루가 마을 입구 양쪽으로 가지를 한껏 뻗어 올렸다. 멋있다. 나무를 지나니 넓은 주차장과 습지 안내판을 만난다. 숨을 돌리고 마을로 들어간다. 산 경사를 따라 집과 골목이 보인다. 할머니 댁에 온 듯 하다. 마음 한편이 포근해진다. 이건 시작이다. 급경사 몇 개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만 한다.

마지막인가? 나뭇잎은 떨어진 채로 발그레하게 물든 사과가 하나 가득 매달린 나무 사이로 산으로 빙 둘러싸인 습지가 보인다. 과수원과 벼가 황금빛으로 익은 논이 습지와 어우러졌다. 사과나무를 따라 돌고 돌아 전망대를 만났다. 다시 빙글 빙글 돌아 전망대에 올라 돌리네습지를 바라본다.

산 사이로 움푹 들어가 있는 가운데 누군간 정성껏 가꾼 걸까? 네모 반듯한 둠벙이 보인다. 둠벙 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둠벙 한 쪽으로 하얗게 핀 억새가 짝꿍이 되어 한들거린다. 그 반대편으로 버드나무 군락이 또 다른 짝꿍처럼 동글동글 모여 있다. 물은 연두빛 우유를 풀은 듯 연초록색으로 빛난다. 자세히 보니 연초록빛 버드나무가 수면에 반영되었다. 한 폭의 그림이 이런 것일까?

위에서 보면 억새와 버드나무가 전부인듯 하지만, 탐방로로 걸어 내려가 보면 이들로 가려진 물웅덩이가 여럿 보인다. 이런 곳은 어미고라니가 새끼를 옆에 두고 숨어 쉬기에 좋은 장소이다.

돌리네는 마을 이름도 동물 이름도 아니다. 석회암이 물에 녹아 움푹하게 파인 땅을 '돌리네'라 한다. 원래 돌리네습지는 석회암이 주를 이루어 물이 고이기가 쉽지 않다. 제주도 석회암동굴이 떠오른다. 동굴 안을 걸어 들어갔다 오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진 물로 옷과 신발 모두 젖어 나오던 생각이 난다. 석회암은 물에 녹는다. 특히 약산성을 띠는 빗물에 잘 녹는다. 석회암 웅덩이에 물이 고이기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제평야는 토성 자체가 부드럽고 차진 점질인 흙이어서 진흙을 바르면서 둑을 만들어 물이 고이는 둠벙을 만든다. 물이 새는 논은 점질인 토양 쉽게 말해 진흙으로 채워 물빠짐을 막기도 할만큼 점질토는 물을 고이게 하는데 용이한 흙이다.

문경 돌리네습지는 석회암 위로 '테라로사'라 불리우는 작은 흙알갱이가 층을 만들면서 물이 고이게 되었다고 한다. 석회암 중 물에 잘 녹는 성분이 제거되고 녹지 않고 남은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차진 흙이다. 테라로사는 커피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란 뜻도 있어 커피로 유명한 강릉 그리고 브라질에 가면 들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곳이 커피 재배지가 될지 궁금하다.

습지를 감싸고 산을 타고 둥글게 조성된 탐방로를 따라 가보니 자그마한 둠벙 옆으로 논이 있다. 석회암 토양에서 벼를 재배하면 아연결핍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갑자기 토양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다

/전북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농업환경과 농업생태실

국립익산박물관, '박물관과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

매주 토요일 박물관 야외공연장

국립익산박물관이 '박물관과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실시되는 이번 문화행사는 연주곡 및 백제문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연주와 음악 공연으로 진행해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인식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다음달 6일 진행되는 첫 공연은 가수 김범룡과의 듀엣곡 '친구야'로 유명한 가수 박진광과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및 음악감독 조상익의 지휘와 콘서트가이드 송혜진 교수의 해설로 △백학(모래시계ost), △파도(영웅시대ost), △친구야 등 다양한 장르의 곡 공연이 준비돼 있다.

13일은 소프라노 오현정, 테너 최재영, 플루트 송혜진 교수, 조은비의 △Carmen Fantasy for 2flutes and piano △사운드 오브 뮤직 ost △넬라판타지아 (가브리엘 오보에 "영화 미션ost") △지금 이 순간 등이 준비된다.

20일에는 with us와 솔디바 아우라 밴드의 △옛사랑(이문세노래) △너무아픈사랑은사랑이아니었음을(김광석노래) stay with me(도깨비ost) 등이다.

마지막 27일 공연에는 세계 각지의 유수의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로 이뤄져 있는 "율뮤직앙상블"의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익산박물관은 문화행사 기간중 특별전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개최·전시해 현전하는 백제석등 3점(익산 미륵사지 석등, 부여 가탑리 석등 하대석, 공주 탄천 정치리 석등 하대석)을 모두 한자리에 보며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익산=임규창 기자

전북민예총, 동학농민혁명 기념미술제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은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라감영에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미술제를 개최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주주의 운동, 최초 민족주의 운동, 반부패개혁운동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라도 서남해안 지역 특히 정읍 · 고창 · 부안지역의 지역 역사로 축소 · 왜곡됐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계기로 전국에서 동학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고, 역사학계의 연구와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일어나 2004년 특별법, 2019년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127년이 지난 지금,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총본부인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전북 전주의 전라감영에서 전북민예총 미술분과 회원들과 도내 미술인들이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이번 미술전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이기홍, 이택구, 진창윤, 정하영 등 50여 명의 작가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하며, 회화 · 판화 · 입체(조소, 설치) · 만장 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문병학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반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전라감영, 동아시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1번지에서 열리는 뜻깊은 미술전에 전북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근 기자

완주예총 '완주예술제' 예술인 기량 선보여

한국예총 완주지회(이하 완주예총)가 제7회 완주예술제를 성료했다.

27일 한국예총 완주지회는 최근 삼례문화예술촌서 '으뜸도시 청정완주! 신명나는 완주예술'을 슬로건으로 1년의 활동을 결산했다고 밝혔다.

사진협회와 문인협회의 작품전시를 시작으로 국악, 연극, 음악, 연예협회 등 6개 협회가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예술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진행했다.

전일환 회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 송지용 도의회 의장, 그리고 안호영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의 전달로 완주예술제의 서막이 열렸다.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주제로 한 음악협회의 감동적인 공연에 이어 삼례지역의 역사와 생태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전래동화 〈한내천에 돌아온 맹꽁이와 금개구리〉를 각색한 가족뮤지컬 〈삼례, 금와(金蛙)의 꿈!〉의 연극 무대가 펼쳐졌다. 일제에 묻혀 졌던 옛 삼례의 전통문화를 되새기고 복원하는 내용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안숙선 명창,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남원예촌 '안숙선명창의 여정'

안숙선 명창이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남원예촌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및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야금병창, 무용, 아쟁산조 등 다양한 국악무대로 꾸며진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은 국악계의 프리마돈나로 불리며 다양한 공연과 기획 등으로 국악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최근 '2021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안 명창은 이번 공연에 대해 "남원은 저에게 뿌리"라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소리를 사랑하시는 고향분들과 함께 라서 더욱 뜻 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정읍시립국악단, 시민 힐링 프로젝트 '국악 정감'

동백타령-아리랑 등 선보여

정읍시립 국악 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시민 힐링 프로젝트 '국악 정감' 공연을 선보인다.

28일 오후 7시 30분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정읍시립국악단의 '국악 정감' 상설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시민들을 위로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공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타악기 장고를 축소해서 만든 '경고'를 소품으로 사용한 경쾌하고 역동적인 두드림의 '경고무'로 시작된다.

또 창극부의 남도민요 '동백타령, 신 뱃노래', 정읍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 사물 놀이팀이 함께 협업해 구성한 '아리랑'과 '내장산'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어서 가을에 잘 어울리는 진한 한국인의 정서를 닮은 '찔레꽃',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장타령' 등 국악가요로 시민들의 마음에 전통의 향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마지막 작품은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낸 '고구려의 혼'과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든 '아리랑의 향연'으로 정감 어린 전통예술을 통해 감흥을 선사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수 기자